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3부

화해의 대장정

–

제3장 4·3의 해원(解寃)과 화해 / 장윤식

제1절 화해와 상생

제주4·3평화재단
JEJU43PEACE FOUNDATION

2.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

1) 유족회·경우회의 화해 선언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 수호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와 제주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자의 후손들이 모인 제주4·3희생자 유족회가 오늘 함께 손을 잡았다.

과거 우리 두 단체는 편향된 시각에서 한마디로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냉대하며, 오직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등을 돌리고 살아왔다.

제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 두 단체가 과거의 자신들의 상처만을 부둥켜안고,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해 왔음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 발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 5월 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창립 기념행사에 서귀포시재 향경우회 임원들이 참석한데 이어 지난 5월 13일 제주시지부회 창립 기념행사에도 제주시재향경우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4·3유족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후 몇 차례 상견례 모임을 이어간 후 우리 모두 다 같은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서 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껴안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세월의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 갈 것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 동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2013년 6월 6일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은 군경 전사 자의 넋이 안장된 충혼묘지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감동 을 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어서 4·3위령제에 경우회가 참석하여 4·3에 의하여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서로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서로 협력하고 제주 발전에 헌신할 것 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우리는 이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으로 도민화합에 앞장

서며,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세월 반목의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며, 희망찬 제주 건설의 역군으로 함께 제주 발전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준다.

2013년 8월 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2013년 8월 2일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 사건의 성격 규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단체들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양측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현창하 제주도경 우회장은 "4·3 발발 65년이 지난 지금 당사자들은 돌아가시거나 고령인데 언제까지 대 립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됐다. 4·3은 시대가 낳은 비극의 수난이자 제주도민 모두가 피 해자라는 입장에서 서로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문현 4·3유족회장은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우리 두 단체가 본보기가 되면 다른 단체들도 화해와 상생 분위기에 동참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회와 경우회는 "과거 두 단체는 편향된 시각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냉대하며,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등을 돌리고 살아왔다."며 "제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우리 두 단체가 과거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해 왔음을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고 화해해 제주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이념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으로 도민 화합에 앞장서며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주 발전에 동참하겠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 고 대화를 통해 서로 위로하겠다."고 다짐했다.(제주일보, 2013. 8. 5).

도내 정치권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4·3유족회와 경우회의 대국적인 큰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 4·3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나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행정과 4·3 관련 단체,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일보, 2013. 8. 5).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 주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끊 임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역사 왜곡 시도에 시달려 왔다.”며 “제주도재향경우회와 유족 회가 손을 잡고 화해와 상생의 노력에 나선다는 것은 향후 제주4·3 해결의 진전을 위한 상징적인 역사로 기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제주매일, 2013. 8. 5).

도내 언론들도 일제히 4·3 화해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등의 환영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화해 선언 직후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인 언론도 있다.

다음은 제주일보(2013. 8. 5) 사설 ‘기대되는 4·3유족회-경우회 화해 선언’이다.

> (전략) 두 단체의 ‘화해·상생’ 선언은 제주4·3과 관련한 도민사회 통합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5년 간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서 있던 두 단체가 협력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것도 묵은 원한의 감정을 덮어둔 채,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감싸면서 말이다. 그야말로 반갑고 흐뭇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4·3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장 지역 정 치권이 여야를 떠나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 게 그 예다. 그러나 4·3을 바라보는 시 각이 다른 게 우리의 현실이다. 거기에다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역사 왜곡 시도가 있어 왔다. 그만 큼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앞으로 두 단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 보를 지속한다면 4·3 해결에 큰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단체들의 합류 가 잇따를 수 있어서다.

그런데 김동일 자유논객연합회장은 제주일보 2013년 8월 21일자 오피니언난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짜리 화해’라는 기고를 통해 “두 단체의 회견은 제주도가 1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제주일보, 2013. 8. 21). 이에 대해 경우회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법은 500만 원의 벌 금을 선고했다. 유족회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2) 화해 선언의 과정,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4·3진상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확정(2003. 10. 15)될 때까지만 해도 제주경우회는 “심히 왜곡 편향된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4·3 치유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꿔 화해의 길에 나선 것이다.

유족회와 경우회는 화해선언이 있기까지 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공식·비공식 의견 교환의 장과 행사 참석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화해의 계기가

된 것은 2013년 3월 2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된 DBS동아방송 제주방송국이 주최한 '제주4·3 화해와 상생의 길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4·3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 중 보 수우익 인사의 발언을 놓고 유족회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토 론회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행사 마무리 이후 유족회장과 재향경우회장의 사적인 대화 가 있었고 이 대화가 꽉 막혔던 화해의 물꼬를 트게 했다. 정문현 당시 유족회장은 "그날 행사장에서 우익 인사의 발언 때문에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어도 상당히 불쾌한 상태였는 데, 서귀포경우회 소속 인사가 내게 와서는 경우회장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했어요. 바로 만났죠. 서로 수인사하고 하는데 한번 별도로 만나자고 합디다. 그럽시다 해서 만났는데 이야기가 비교적 잘 통했어요. 그래서 양측에서 한두 사람씩 더 늘려가며 대화를 이어가 다 양측의 행사 참가까지 얘기가 진전됐죠."라고 했다.

먼저 나선 것은 제주도경우회였다. 2013년 5월 6일 열린 4·3유족회 서귀포시지부 창립 6주년 행사에 경우회 임원들이 참석,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1주일 뒤에 열린 제주시 지부 6주년 창립기념대회 때도 경우회 임원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찾은 유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5월 24일 경우회와 4·3유족회 전·현직 임원들을 음 식점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제주경우회에서는 현창하 회장 등 5명이, 4·3 유족회에서는 정문현 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4·3유족들은 경우회 임원의 유족회 행사 참석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6월 6일 제58회 현충일 행사장을 찾겠다고 했고, 경우 회 역시 "내년 66주년 4·3위령제에 초청해 주면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반겼다. 결국 6 월 6일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4·3유족회 임원들이 참석해 화해의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유족회 관계자는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매도한 경우회의 인사가 그 사안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억울한 유족들에게 박은 대못을 빼기 위해선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어야 마음을 풀고 상생과 협 력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제이누리, 2013. 5. 24).

2013년 8월 2일 화해선언 이후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를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7일 두 단체는 '도민 화합을 위한 화해·상생 합동 추모행사'를 가졌 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와 유족회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부터 제주시 충혼묘지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호국영령과 4·3희생자를 추모하는 합 동참배를 했다.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든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제주 도당 위원장이 각각 참가하여 모든 일정을 같이함으로써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유족 회와 경우회의 화해 행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창하 제주도 재향경우회장은 2014년 1월 3일 오전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재향경우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4·3유족회와 화해

를 했다. 도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4·3유족회와의 화해 의미를 강조했다. 현 회장은 “한 시대의 비극 속에 누구는 가해자, 누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주도민은 모두 피해자다. 4·3유족회와 서로 참여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앞으로 화해는 계속 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제주투데이, 2014. 1. 3). 정문현 4·3유족회장 또한 2014년 2월 26일 유족회 정기총회에서 “경우회와의 충혼묘지·4·3평화공원 합동참배 등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유족의 협조를 당부”했다.(4·3유족회 정기총회자료집, 2014). 제주경우회 회원들은 2014년부터 4·3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고 있다.

제주4·3 이후 60여 년 간 등을 돌린 채 살다가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경찰 출신 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등은 8월 2일 화해와 상생 선언 1주년 기념 합동참배를 진행했다. 4·3유족회와 경우회 회원, 새누리당 제주도당,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관계자 등 30여 명은 태풍 ‘나쿠리’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함께 제주시 충혼묘지 와 제주4·3평화공원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한라일보, 2014. 8. 4).

그리고 2014년 10월 28일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현창하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장이 나란히 손을 잡고 두 번째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을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이끄는 의미 있는 동행이었다. 반세기의 반목을 뛰어넘는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고, 박근혜 대통령 등 개막식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헤드라인제주, 2014. 10. 28).

한편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일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은 28일부터 주경기장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4·3을 홍보하고 나섰다. 유족회 측은 “전국체전이 열리 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4·3자료 배포, 사진 전시 등을 통해 4·3을 홍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4·3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고 말했다.(한라일보, 2014. 10. 31).